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6.4.30.(목) 배포 즉시	사진	o	자료	x	매수	2
담당부서	해양수산자원연구소 (갯벌연구팀)	소장	김성곤 (031-8008-6500)				
		팀장	임성률 (031-8008-8366)				
		담당자	김광배 (031-8008-8354)				

경기도, 화성·안산 갯벌에 1,000㎡ 규모 블루카본 생태계 추가 조성

- 화성 백미리·안산 선감도에 염생식물 1,000㎡ 추가 조성
 - 지난해에도 1,244㎡ 조성. 총 2,200㎡
- 잘피 조사 병행. 탄소흡수량 산정 기반 마련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화성시 백미리와 안산시 선감도 갯벌 일대에 ‘블루카본 생태계 복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블루카본(Blue Carbon)’은 갯벌이나 갯벌 인근 토양 등에 서식하는 해초류(잘피), 염생식물 등 생태계가 만들어내는 탄소 저장고를 말한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토양에 장기간 저장하는 역할을 하며 최근 기후위기 극복 방안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연구소는 지난해 백미리 304㎡, 선감도 940㎡를 조성한 데 이어, 올해는 4월 30일과 5월 28일 두 차례에 걸쳐 백미리 300㎡, 선감도 700㎡를 추가로 조성해 총 2,200㎡ 규모의 블루카본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조성 대상은 큰비쭉, 갯질경, 해홍나물, 칠면초 등 염생식물 4종이다. 염생식물은 바닷물 영향을 받는 환경에서도 자라며 탄소 저장 효과도 크다.

연구소는 염생식물 조성과 함께 해초류(잘피) 서식지 조사도 병행한다. 잘피는 해양 생태계의 대표적인 탄소흡수 생물로, 탄소 저장 능력이 높고 생태계 건강성을 보여주는 지표종이다.

김성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염생식물과 잘피를 연계한 복합적인 탄소흡수 기반을 구축하고, 향후 탄소흡수량 산정과 정책 활용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연안 생태계 복원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